

## 광주세계수영대회 194개국 2639명 엔트리 확정 '최대 규모'

러시아 카잔보다 10개국 · 선수 223명 많아  
메달 수 많은 '경쟁' 194개국 2462명 참가  
대한민국 선수 82명 70개 세부경기 출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역사  
대 대회 중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7월 국제수영연맹(FINA)과 광주세  
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  
면 지난 3일 경기 엔트리를 마감한 결  
과 194개국에서 2639명의 선수들이  
등록했다. 6개 종목 76개 세부경기  
에 총 5128명이 출전한다.  
역대 최대 참가국 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로 184개국에서 2416  
명이 참가했다. 광주 대회는 카잔보다  
10개국, 선수 223명이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경쟁 경기에만  
194개국에서 2462명이 경기 엔트리  
등록을 마쳤으며, 개인·단체 경기가  
함께 있는 아티스틱 수영에는 47개국  
109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빙 경기 등록을 마친 선수는 49  
개국 571명, 단체 경기인 수구는 516  
명이며, 오픈워터 수영은 60개국 387  
명, 남·녀 각각 금메달이 1개씩인 하  
이다이빙은 39명이 등록했다.  
우리나라 82명의 선수들은 전체 경

기중 70개의 세부경기에 출전한다.  
우선 4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경  
영에 29명이 등록했으며 개최국으로  
출전티켓을 확보한 수구 경기 남·녀  
2개 경기에 각각 13명씩 26명이 출전  
한다.  
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오픈워터  
수영에 8명, 7개 경기가 펼쳐지는 아  
티스틱 수영에 11명, 다이빙 13개 경  
기에 8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혼영 200m 금메달을 땀 김서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혼영 200m  
와 400m에 등록했으며, 여자 100m  
배영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임  
다슬 선수는 배영 50m, 100m, 200m  
에 출전한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다이빙 결  
선까지 진출하고 2019 FINA 다이빙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우하람 선수가 다이빙 1m 스  
프링보드와 3m 스프링, 10m 플랫폼,  
3m 싱크로, 10m 싱크로 개인전 전 종  
목에 출전한다.  
해의 선수로는 지난 2017년 부다페  
스트 7관왕인 미국의 카렐 드레셀이  
개인전 자유형 50m, 100m, 접영 50m,  
100m에 출전한다.  
2016 리우올림픽과 지난 부다페스  
트 대회 2관왕인 중국의 수영스타 쑨  
양도 자유형 200m, 400m, 800m,  
1500m에 출전하고 부다페스트 5관왕  
에 오른 '수영의 여제' 케이트 레데키  
는 자유형 200m, 400m, 800m,  
1500m에 참가한다.  
경기 일정과 유망 선수들의 참가여  
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지나 대회 홈페이지(1577-1055)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7일 앞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개촌식이 열린  
가운데 공식 깃발이 게양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와 여수에서 열리며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스터스 대회가 펼쳐진다.

## 장성군,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기념사업 추진

장성군, 기념비 제막행사 · 축하공연 · 학술대회 개최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국가 공인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제242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 됐다.  
전남 장성군은 지난 6일 오후 아  
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  
됐다고 7일 밝혔다.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 회  
(ICOMOS·이코모스)는 "필암서원  
을 비롯한 9개 서원은 조선시대 전  
반에 보편화 돼 있던 성리학의 증거  
이자 성리학의 지역 전파에 이바지  
한 교육기관"이라면서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장성군은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 됨에 따라 등재 선포·  
인증서 전달식을 비롯해 축하공연,  
고유제 봉행, 성독대회, 제향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  
다.  
또 필암서원과 관련된 각종 학술  
행사로 개최하고 자료집·홍보책자  
발간, 기념비 제작 등도 추진한다.  
필암서원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에 위패가 안치된 지역 유림의  
종장인 조선 중기의 문신 하서(河  
西) 김인후(1510~1560년) 학자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500년(선조 23  
년) 그의 고향인 장성을 기산리에 건  
립됐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인조 2년(1624)에 자리를 옮겨 황룡  
면 필암리에 다시 세웠다.  
서원 이름을 '필암(筆巖)'으로 지  
은 것은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마을  
입구에 있는 '북처령 생긴 바위'에  
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  
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이다.  
서원에는 '보물 제587호'로 지정  
된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 文

蹟 一括 노비보·원장선생안·집강  
안·원적·봉심록·서원성적 등)과  
인종(仁宗)이 하서 김인후에게 하사  
한 '묵죽도(墨竹圖)'와 '하서유묵  
(河西遺墨)' 등 60여건의 자료가 보  
존·관리되고 있다.  
동쪽 경장각에는 정조가 하사한  
편액과 인조가 하사한 묵죽도 판각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휴식처인 확  
연루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  
다.  
현재 필암서원은 장성군이 2011  
년 9월부터 조선 청백리 생활을 체  
험하는 청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  
다.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 교육기관, 정부 출연기  
관 등 130여 기관과 단체에서 8만  
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청림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장  
성군민과 함께 '문물여장성(文不如  
長城·학문에 있어 장성만한 곳이  
없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세계의 유산이 된 필암  
서원을 국제 규범에 적합하게 관  
리·보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시 재정집행 실적 전국 특·광역시 중 '2위'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목표액을 초  
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2조4727억원을 초과한 2조56175억  
(105.85%)을 집행해 전국 특·광역시  
중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 주력한 결과 일자리사업은 당초 목  
표인 6014억원의 125.5%인 7547억원을  
집행해 전국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2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추경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재정 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 생활SOC 기반 확충, 미  
래형 신산업 육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생활안정 분야에 중점 투  
자하고 집행한 결과다.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하반  
기에도 지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지  
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일  
자리 창출 등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